

# 지는 법을 잊었다



# 바다 건너 하이킥



광주 FC가 11일 제주로 건너가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5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도전한다. 지난 2R 맞대결에서 결승골을 터트렸던 정조국(오른쪽)이 공격 전면에 선다. <광주FC 제공>



## 리우 올림픽 양보도 가능

‘손가락 부상’ 박인비  
컨디션 회복 안돼 고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명예의 전당 입회를 앞둔 박인비(28·KB금융그룹)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으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인비는 9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의 사할리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은 나라를 대표해 나가는 것인데 컨디션이 좋지 않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가 나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인비는 올 시즌 초에는 허리 부상으로, 최근에는 엄지 손가락 부상으로 고전해 왔다. 앞서 열린 킹스빌 챔피언과 벌빅 챔피언십에서 대회 도중 기권하기도 했다. 박인비는 “올림픽 전에 컨디션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지만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인비는 현재 세계랭킹 2위로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랭킹이 높다. 올림픽 전까지 열리는 LPGA 투어에서 부진하더라도 출전권을 얻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올림픽에 나간다면 좋은 성적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인비는 “내가 만약 불참한다면 대신 나갈 선수가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이달 안에는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인비는 10일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1라운드에 출전하면 명예의 전당 마지막 입회 조건인 ‘10년 동안 투어 활동’(한 시즌 최소 10개 대회 출전)을 충족시킨다.

연합뉴스



### ‘4연속 무패’ 광주FC 11일 K리그 클래식 제주 원정

### 이찬동 등 국가대표 3인방 복귀... 탄탄한 전력 무장

### 1위 전북과 무승부·제주에 시즌 2승... 자신감 충만

광주 FC의 거침없는 기세가 바다를 건넌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11일 오후 6시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2016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자신감을 안고 적지로 향한다.

광주는 지난 4일 안방에서 치른 ‘강적’ 전북 현대와의 순연 경기에서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며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후반 막바지에 나온 정조국의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맞으면서 승점 1에 만족해야 했지만 승리 같은 무승부였다. 이 무승부로 광주는 3연승 이후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탄탄해진 전력과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상승세, 제주전 달콤한 승리의 기억이 광주 선수들을 움직인다.

올 시즌 광주는 제주와의 두 차례 만남에서 모두 승리했다. 광주는 2라운드 경기로 펼쳐졌던 제주와의 홈 개막전에서 정조국의 결승골에 힘입어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주 안방에서 짜릿한 승리를 신고했다. FA컵 32강전이 승리의 무대였다. 광주는 이날 주축 선수들을 총 출동시킨 제주를 상대로 달랠진 스쿼드를 과시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주축 선수들을 빼고 조영태, 이민기, 조주영, 주원우, 김정현 등 백업 자원들을 활용해 FA컵 경기를 치른 광주였다. 광주는 든든한 수문장 윤보상의 활약 속에 승부차기 점전 끝에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방식은 금물이다. 제주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제주는 최근 4경기에서 막강한 공격력

을 선보이면서 3승1패의 성적을 냈다. 무엇보다 화끈한 화력이 돋보인다. 최근 4경기에서 제주는 무려 14차례나 상대 골대를 가르면서 3승을 쓸어들었다.

서울과의 12라운드 경기도 극적이었다. 광주에서 제주로 이적한 김호남이 1골 2도움의 맹활약을 하면서 4-3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앞선 친정 방문에서는 판정패를 당했던 김호남이 매서워진 발끝으로 광주의 골대를 겨냥하고 있다.

광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다. 잘 맞물려 돌아가는 선수층이 가장 큰 힘이다. 광주는 지난 전북과의 경기에서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인해 이찬동, 박동진, 홍준호 카드를 쓸 수 없었다. 이들의 부재에도 1실점으로 전북의 공세를 막으면서 무승부를 만들어냈던 광주다. 그리고 빠

### ■ 2016 K리그 클래식 정규시즌 순위 (9월 현재)

순위	구단명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득실차
1	전북 현대 모터스	12	26	7	5	0	22	14	8
2	FC 서울	12	23	7	2	3	25	16	9
3	성남 FC	12	21	6	3	3	21	14	7
4	제주 유나이티드	12	20	6	2	4	26	18	8
5	울산 현대 축구단	12	18	5	3	4	13	13	0
6	광주FC	12	18	5	3	4	13	14	-1
7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	12	14	4	2	6	22	25	-3
8	포항 스틸러스	12	14	3	5	4	13	13	0
9	수원 삼성 블루윙즈	12	13	2	7	3	18	21	-3
10	수원 FC	12	11	2	5	5	10	18	-8
11	전남 드래곤즈	12	8	1	5	6	11	18	-7
12	인천 유나이티드	12	7	1	4	7	9	19	-10

져있던 세 선수가 큰 무대의 경험을 안고 팀으로 복귀하면서 한층 강화된 전력으로 제주 원정길에 나설 수 있게 됐다. 4개국 친선대회에서도 투지의 플레이를 보여준 이찬동을 중심으로 박동진과 홍준호가 뒤를 막아준다면 날카로운 제주의 창을 막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6위 광주(승점 18)는 4위 제주(승점 20)와의 경기 이후 2위 서울(승점 23), 3위 성남(승점 21) 그리고 다시 1위 전북(승점 26)을 만나야 한다. 광주가 제주전 우위를 이어가면서 험난한 6월 행보에 무패 기록을 더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리틀 김국영 달린다

지난해 광주에서 치러진 ‘제17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육상경기연맹 제공>

###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대회... 11~12일 광주 월드컵경기장

‘제 2의 김국영을 찾아라!’

대한육상경기연맹과 광주시육상경기연맹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제 18회 전국 꿈나무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한국 육상의 앞날을 짊어질 선수 발굴을 위한 무대로, 전국의 육상 꿈나무 830여명이 참여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선수들이 총 71개 종목(초등부 22개 종목·중학부 49개 종목)에서 실력을 다툰다. 종목별 1~3위 입상자에게 상장 및 메달이 수여되고 향후 꿈나무선수 선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최종 선발된 육상 꿈나무선수들은 차세대 육상 유망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한육상연맹의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받게 된다.

광주에서는 초등부에 송정초·빛고을초·일곡초 등 3개교 10명이, 중학부는 광주체육중·비아중 선수 20명이 출전한다.

심재용 광주시육상경기연맹 부회장(광주시정 육상팀 감독)은 “대회는 육상 유망주를 조기에 발굴해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지도를 통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1997년 시작했다”며 “한국 육상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 지속적인 훈련·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월드컵 최종예선 뿔 K리저 찾으러 간다

### 슈틸리케 감독, 12일 성남FC-전북 현대전 관람 예정

유럽원정을 마친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 곧바로 K리그에서 선수를 점검한다.

귀국 후 첫 현장 점검의 무대는 12일 성남FC와 전북 현대의 K리그 클래식 13라운드 경기가 열리는 탄천종합운동장이다.

유럽원정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 중에는 활의조가 성남 소속이고, 이재성이 전북에서 뛰고 있다.

다만 슈틸리케 감독이 탄천종합운동장을 찾는 이유는 이미 유럽원정에 동행한 두 선수를 재차 점검하기 보다 9월부터 시작하는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에 발탁할 선수들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북에는 올 시즌 4골을 뽑아 내면서 부활에 성공한 한교원이 뛰고 있다.

지난 2014년 슈틸리케 감독 부임 이후 태극마크를 단 한교원은 A매치 9

경기를 뛰었지만 지난해 5월 상대 선수 보복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대표팀에서 낙마했다. 한교원은 지난날 8일 수원 삼성과의 경기에서 슈틸리케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골을



뽑아내면서 국가대표 재발탁의 꿈을 키웠지만 결국 유럽원정에 동행하지 못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한교원 외에도 K리그의 강팀인 두 팀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표팀 전력을 보강할 재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슈틸리케 감독은 유럽원정 직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대표팀에 대해 “하루 이틀 만에 개선될 것 같지는 않지만 기술적으로는 미흡했다. 좁은 공간에서의 상대 압박 등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해에는 6월 하순 2주간 유럽에서 휴가를 보냈지만, 올해는 아직 휴가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합뉴스

## 펠레 소장 ‘줄리메컵’ 6억6천만원에 낙찰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가 소장했던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 줄리메컵이 39만5000천 파운드(약 6억 6000만원)에 팔렸다.

영국 스포츠스포츠는 8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펠레의 개인 소장품 경매에서 스위스의 시계 제조업체 위블로가 줄리메컵을 구매하기 위해 최고가격을 적어냈다고 보도했다.

경매에 출품된 2000여 점의 소장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줄리메컵은 1970년 월드컵 당시 개최국인 멕시코 정부가 펠레를 위해 별도로 제작한 것이다. 월드컵 우승팀에게 수여되는 줄리메컵이 개인에게 수여된 것은 펠레의 예가 유일하다. 실제 줄리메컵은 통상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브라질 축구협회가 소장했지만 1983년 도난당했다.

펠레가 1958년 스웨덴 월드컵 우승 당시 받은 메달은 20만 파운드(3억3600만원)에 팔렸다. 또한 1962년 칠레 월드컵 우승 메달은 14만8000 파운드(2억36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이 밖에도 펠레가 영화 속에서 착용했던 축구화는 8000 파운드(1340만원)에 판매됐다.

이번 경매의 수익금 대부분은 브라질의 한 어린이병원에 기증된다. /연합뉴스

### 박희운 美 양궁국가대표 선발

2002 부산아시아대륙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박희운(40)이 미국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9일 세계양궁협회(WA)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마무리된 미국의 리우데자네이

루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박희운이 매켄지 브라운에 이어 여자 2위를 차지했다. 현재 미국 여자 양궁은 리우행 티켓을 1장 확보해놓은 상태로, 박희운은 12~19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추가 출전권 확보에 도전한다. /연합뉴스